

# UNHCR Global Report 2014 연례보고서

전 세계 난민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연례보고서 한글발췌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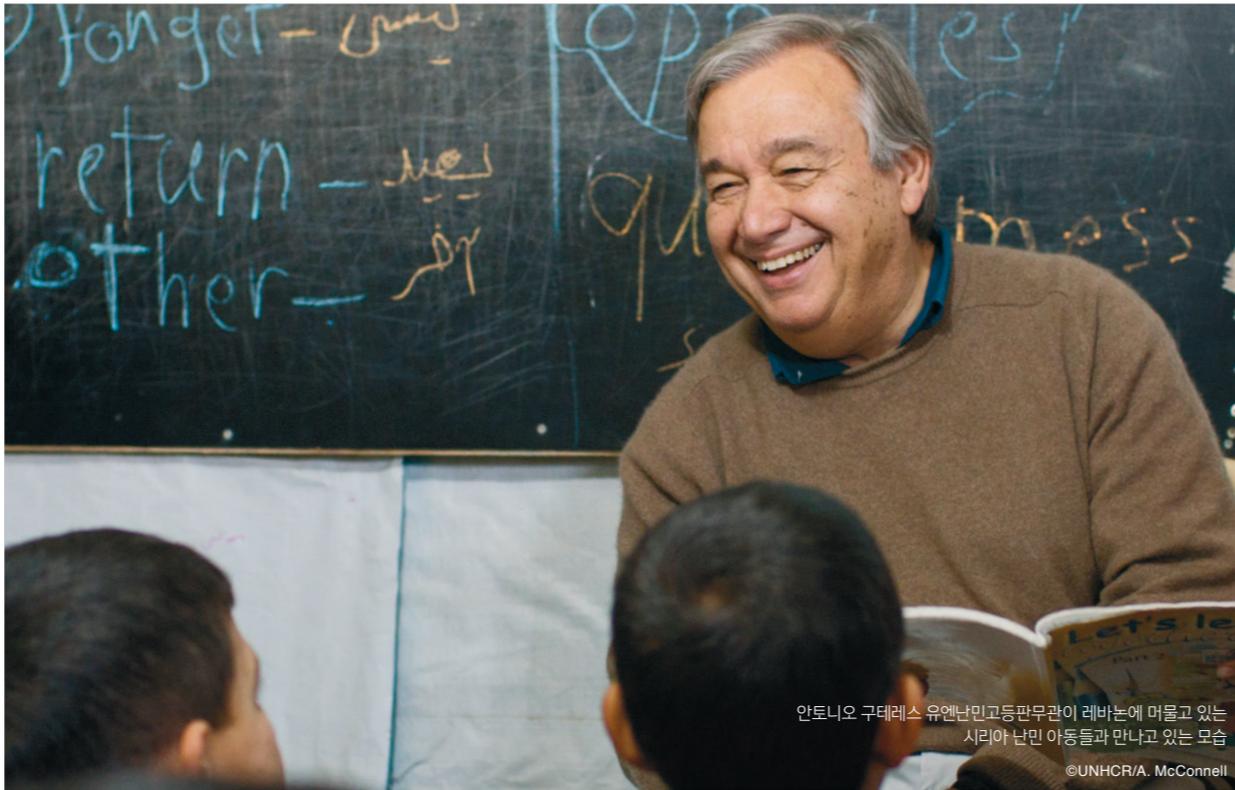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오늘날의 전쟁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갈등은 계속됩니다. 어떤 갈등은 영원히, 또 어떤 갈등은 서로 타협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타협은 애초에 전쟁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무분별한 전쟁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 아동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

©UNHCR/A. McConnell

2014년 최대 규모의 강제이주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해졌다고 생각한 이들이 폭력, 박해에 대한 공포, 자연재해 등으로 다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더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반군은 세력을 넓혀갔고 그들의 잔혹함은 중동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갈등이 심화되었고, 오랜 기간 통합되어 있던 공동체가 종파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신생국인 남수단에 내전이 발발하면서 많은 이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포함해, 더 심각한 경우들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응하고,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아랍어로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사(4세)가 이라크 쿠르드 지역 바시르마(Basirma) 난민촌 거리에 서있는 모습

©UNHCR/S. Rich

## 표지이야기



손녀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마니라(70세)의 모습 (17페이지 이야기 참고)

## contents

- |                          |                 |
|--------------------------|-----------------|
| 02 인사말                   | 21 재건을 위한 필수 지원 |
| 04 한 눈에 보는 2014 세계 난민 동향 | 24 재정 보고        |
| 06 365일 난민보호             | 27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
| 08 함께 대응하는 긴급구호          | 28 한국대표부 활동 보고  |
| 16 생존을 위한 필수 지원          |                 |

발행인 더크 헤베커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5년 7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외협력(PSFR)팀 디자인 인디엔피 www.indnp.com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127개국 462개 지역 사무소에서 7,750명의 직원들이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자 5,495만 명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01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개소한 이래,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내 난민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난민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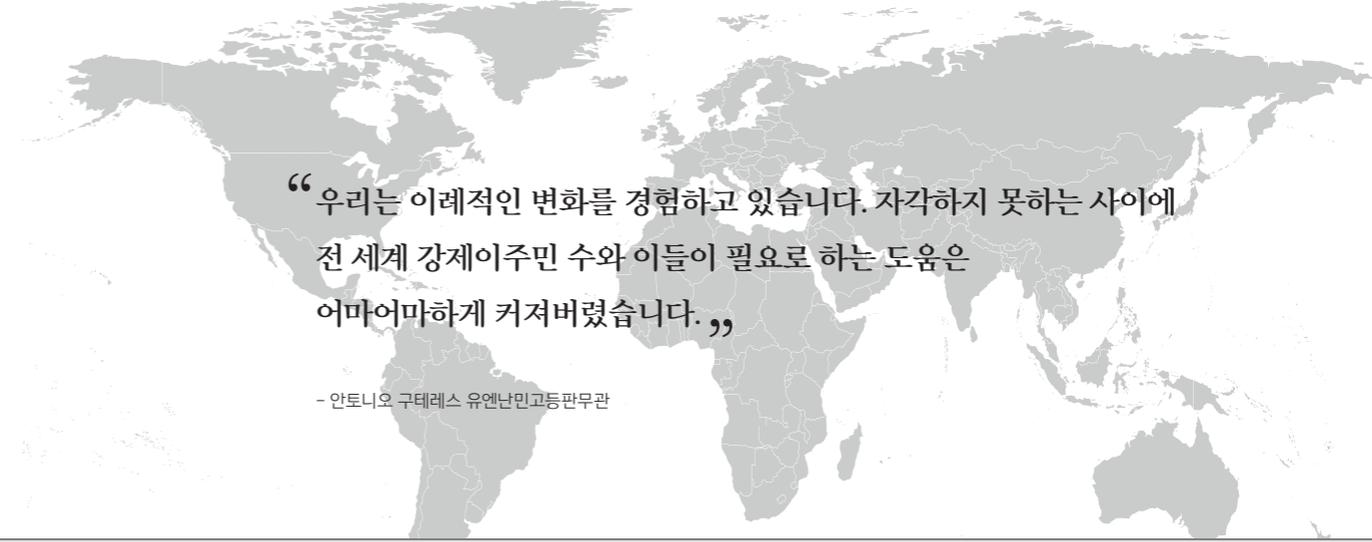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는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즈음 연례보고서(Global Report)를 발행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난민보호 및 지원 현황을 각국 정부와 파트너, 후원자분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대한민국 파트너와 후원자들을 위해 매년 연례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한국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서 한국어 발췌본과 연례보고서 영문 원본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홈페이지(www.unhcr.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 Review – Trends at a glance

# 한 눈에 보는 2014 세계 난민 동향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인 수는 다시 한 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5,950만 명이 분쟁, 박해,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 5,120만 명보다 830만 명 늘어난 숫자로, 사상 최대의 연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만약 5,950만 명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있다면, 전 세계에서 24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 5,950만 명

### 전 세계 강제이주인

- 난민 1,950만 명
  - 유엔난민기구 등록 1,440만 명
  - 팔레스타인 난민구조기구(UNRWA) 등록 510만 명
- 국내실향민 3,820만 명
- 비호신청인 180만 명

## 최다 난민 발생국



전 세계 난민의 반 이상(53%)이 시리아(388만 명), 아프가니스탄(259만 명), 소말리아(111만 명) 3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2/1,000

### 레바논 난민 비율

레바논은 자국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국민 1,000명당 난민 232명을 비호하고 있으며 요르단이 87명, 나우루 공화국이 3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3만 4,300명

### 보호자 없는 어린이 비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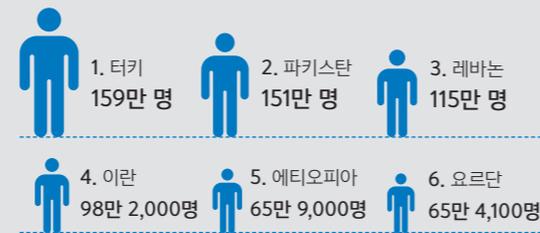
2014년 총 82개국에서 약 3만 4,300명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혹은 가족과 분리된 채 비호를 신청하면서, 유엔난민기구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시리아 혹은 소말리아 출신이었습니다.

## 매일 4만 2,500명

### 강제이주민

분쟁과 박해로 강제로 집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수는 4년 동안 4배나 증가했습니다. 2014년 한 해 하루 평균 4만 2,500명이 집을 떠나 자국 내에서, 혹은 다른 나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2010년 1만 900명, 2011년 1만 4,200명, 2012년 2만 3,400명, 2013년 3만 2,2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최다 난민 비호국



159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터키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비호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151만 명, 레바논 115만 명, 이란 98만 2,000명, 에티오피아 65만 9,000명, 요르단 65만 4,10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86%

### 개발도상국 거주

전 세계 난민의 86%, 1,240만 명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면서 20년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는 최빈국들이 전 세계 난민의 25%인 360만 명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 12만 6,800명

### 귀환민

2014년 한 해 동안 12만 6,800명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절반이 콩고민주공화국(2만 5,200명), 말리(2만 1,000명) 혹은 아프가니스탄(1만 7,800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귀환률입니다.

## 1,390만 명

### 2014년 신규 실향민

2014년 한 해 동안 분쟁이나 박해로 약 1,390만 명의 새로운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숫자는 1,100만 명의 국내실향민을 포함하는데, 이는 사상 최대의 기록입니다. 나머지 290만 명은 다른 나라로 피난을 떠난 난민들입니다.

## 590만 명

### 1인당 국내총생산(GDP)

### 미화 5,000달러 미만국 거주

현재 유엔난민기구의 위임권한에 속해 보호받고 있는 난민 중 42%에 해당하는 59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미화 5,000달러 미만의 GDP를 기록하는 국가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26개국

### 재정착

2014년 한 해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국가들에 10만 3,800명의 재정착을 요청했고, 26개국이 10만 5,200명을 재정착시켰습니다(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포함). 미국에 가장 많은 난민(7만 3,000명)이 재정착했습니다.

## 1,000만 명

### 무국적자

2014년 무국적은 최소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국적자는 75개국 350만 명에 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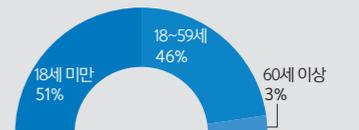
## 170만 명

### 비호/난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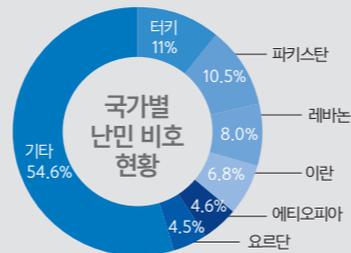
2014년에는 기록적으로 많은 170만 명이 비호 혹은 난민신청을 했으며, 이중 15%인 24만 5,700명을 유엔난민기구에서 접수했습니다. 27만 4,700명의 신규 비호신청자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최다 신청 접수국이 되었으며, 독일(17만 3,100명), 미국(12만 1,200명), 터키(8만 7,800명)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51%

### 18세 미만 어린이



2014년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체 난민인구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의 최대치로 2009년 41%에서 10%나 증가한 비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난민기구 2014 글로벌 동향 보고서(2014 Global Trend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월 남수단 지원 강화

2013년 12월 발생한 분쟁으로, 몇 주 만에 8만 명에 달하는 남수단인들이 인접 국가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주변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남수단 내 고립된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 4월 레바논 거주 시리아 난민 100만 명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어린이이며, 그 중 10만 명만이 정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교대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레바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지 학교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습니다.



## 7월 '홀로 남겨진 여성' 보고서 발행

시리아 가구 중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는, 여성이 가장인 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룬 '홀로 남겨진 여성(Women Alone)'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또 홀어진 가족이 언저라도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각 정부에 비자 및 국경 정책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10월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분쟁, 월동 지원 강화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계속되면서, 실항민들이 첫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공동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1만 4,000명을 위해 난방 처리를 하고 따뜻한 옷과 담요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취약한 개인들을 돕기 위해 현금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 2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보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난민 9,000명이 분쟁을 피해 카메룬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월 말을 기준으로, 주변국에 머물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카메룬 3만 5,000명, 콩고민주공화국 6만 명, 차드 1만 3,000명)을 보호했습니다.



## 5월 새로 문을 연 요르단 알 아즈라크 난민촌

더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요르단 알 아즈라크(Al Azraq) 난민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난민촌에는 13만 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이케아 재단과 같은 파트너 기관과 함께 전기와 빛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8월 이라크 신자르 사태, 대규모 지원 실시

무장 단체가 이라크 북부 신자르(Sinjar) 주변 지역을 점령하면서, 수십만 명이 살아남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21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했고, 8만 명 이상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했으며, 3,500명에게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8월 말까지 텐트 3,300개, 방수천 2만 개, 조리도구 1만 8,500개, 물통 1만 6,000개를 포함한 대규모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 11월 무국적 사태 종결 캠페인

무국적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무국적은 국적이 없어 권리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법적 무소속 상태를 뜻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무국적자가 있습니다. 특히, 피난 중에 태어나는 시리아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무국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등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 3월 '피난길의 아이들' 보고서 발행

'피난길의 아이들(Children on the Run)'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여 폭력, 위협, 학대로 피난길에 오른 중남미 지역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비호신청 절차를 위한 각 정부의 노력과 국제적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 6월 2014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전 세계 강제이주인 수가 5,1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014년 6월 기준, 유엔난민기구는 3,500만 명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확대했고, 이 중 1,170만 명은 유엔난민기구의 직접적인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었습니다.



## 9월 콜롬비아 여성 단체, UN 난센 난민상 수상

유엔난민기구는 여성 단체 버터플라이(Butterflies)에 2014년 난센 난민상(Nansen Refugee Award)을 수여했습니다. 버터플라이는 강제이주와 성폭력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돕는, 용감한 콜롬비아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콜롬비아에 있는 40만 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 12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분쟁, 그 후 1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가 반군에 의해 장악된 지 1년이 지난 2014년 12월, 85만 명이 넘는 이들이 여전히 집을 잃고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파트너 기관과 함께 국내실항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임시 거처, 생필품을 지원하는 한편,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난 18만 명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 함께 대응하는 긴급구호

여러분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새로이 발생한 전 세계 수백만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구호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전 세계 가장 심각한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더욱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상설 파트너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안전 전문 네트워크를 강화해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르단에 도착해 보온 담요, 물, 비스킷을 배급받고 있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의 모습 ©UNHCR/J.Kohler

강제로 피난 길에 올라야만 했던 한 여성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 가르마바(Garmava) 임시 난민촌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UNHCR/S.Baldwin



## 시리아 난민 380만 명

시리아 내전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변국의 난민 수가 3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늘었지만, 여러분과 같은 후원자들 덕분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에게 조리도구, 물통, 담요를 포함한 주요 구호 물품 전달
- 130만 명에게 방한 용품 혹은 연료 구입을 위한 현금 지원
- 난민촌 거주 난민 41만 명 이상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도심 지역에서 살아가는 55만 명에게 집세 혹은 냉난방 시설 지원
- 177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60만 명에게 화장실 및 위생시설 지원
- 340만 건의 의료 상담을 진행하고 43만 명에게 2차 진료를 통해 특별 의료 서비스 제공

## 이라크 국내실향민 300만 명

이라크 내 불안정한 상황에 더해 주변국 시리아에서 반군 세력이 넘어 오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수백만 명의 이라크인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라크 내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은 빠르게 확대되어, 수십만 난민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라크 내 23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존을 도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후원자 덕분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 반군 세력의 공격으로 발생한 21만 명에게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해 담요나 조리도구를 포함한 구호 물품 제공
- 임시 난민촌 24개를 설치해 15만 명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 2015년에 난민촌 11개 추가 설치 예정
- 23만 명 이상에게 월동 물품을 공급하고 2만 5,000개 이상의 단열재 키트 제공
- 새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 9만 명 이상에게 긴급 거처를 제공, 4만 9,000명을 위해 거주 시설을 개선, 9만 5,000명에게 새로운 생존 물품을 제공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42만 5,000명, 국내실향민 43만 7,000명

2014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현재 주기적인 세력 충돌로 국가 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2014년 많은 이들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떠나 인접국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차드로 향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후원자들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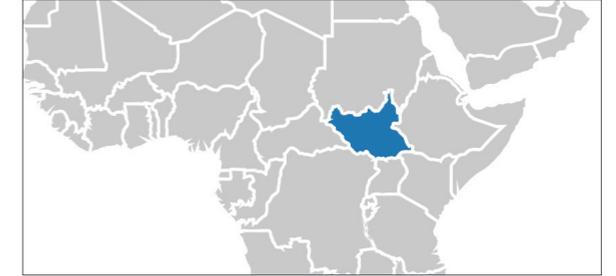
- 90% 이상의 난민을 등록하고 신원 증명 서류를 발급하면서, 이들이 필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수송 센터와 난민촌에 도착하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십만 명을 위해 전면적인 의료 및 영양 검사를 시행
- 방기(Bangui)와 바상고아(Bassangoa) 지역의 가건물에 살고 있는 국내실향민 수십만 명에게 긴급구호 물품 제공
- 콩고민주공화국과 카메룬 난민촌에 머무는 어린이 난민 수천 명의 초등 교육을 지원



방금 카메룬 울빌라(Mbila) 난민촌에 도착한 여성과 갓난아기의 모습 ©UNHCR/F.Noy

## 남수단 보호대상자 190만 명

2013년 말, 전 세계에서 가장 신생국인 남수단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1년 후, 140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고 수십만 명이 인접국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내전으로 많은 이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고, 피난 사태는 식량 부족, 식량 불안정으로 이어져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근은 남수단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후원자들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 남수단 내 난민 23만 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
- 인접국 3개 난민촌 내 62만 명의 생존을 지원
- 주로 여성과 어린이로 구성된 에티오피아 거주 남수단 난민 19만 명 지원
- 특히, 남수단 정부와 협조하여 주변국에 난민촌 24개를 신설해 난민들에게 보호, 임시 거처, 기타 기본 서비스를 제공



6세 남수단 국내실향민 마크 철(Mach Chuol)의 모습 ©UNHCR/A.McConnell

Protection in Action  
난민보호 활동

현장 직원 젬마의  
2014년 8월 어느 하루



젬마가 예만, 레일라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 ©UNHCR/R.Nuri



2007년을 시작으로 예멘, 튀니지, 케냐, 이라크에서 근무해 온 젬마 우즈(Gemma Woods)는 지난 5월, 이라크 쿠르드 지역 보호팀에 법무관으로 파견되었고, 그 이후 IS 반군 세력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수백만 이라크 실항민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 위기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라크 국내실항민을 만난 2014년 8월 어느 하루를 회고합니다.

am 6:00

하루 중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조용하고, 시원하고, 정적이죠. 그러나 이른 아침 시간에도 곧 다가올 뜨거운 날씨를 미리 느낄 수 있죠. 저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수도인 에르빌(Erbil)에 위치한 유엔 기지(컴파운드)에서 일해요. 기지는 항상 유엔과 쿠르드군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시 철조망이 덮인 높은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일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곳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해가 뜨면 얼마 전 설치된 카자이르(Khazair) 수송 캠프로 가기 위해 보안 허가를 받습니다. 수송 캠프는 에르빌과 모술(Mosul)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쿠르드 지역은 다른 이라크 지방보다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해야 비로소 우리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도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수송 차량에 탑승하면서 제 하루 업무가 시작됩니다. 라디오를 통해 유엔 기지로부터 주기적으로 지역 치안 상황을 보고 받고, 이메일도 확인합니다. 또 그날 있을 회의를 위해 전화를 하면서, 틈틈이 월간 보고서도 작성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현장 업무는 절대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동료들, 우리가 돕는 이들, NGO단체,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동시에 귀기울이죠.

am 7:15

am 9:30

오늘 원래는 극도로 취약한 난민촌 거주민들의 상황을 점검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난민 가족들이 난민촌에 막 도착했네요. 지난 몇 주간 우리의 대응 능력 이상의 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이곳으로 유입되었어요. 쿠르드 지역 당국과 협력해 난민촌을 세우자마자 이 난민촌은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죠. 난민촌에 도착한 사람들은 맨발로, 한 손에는 아이를 잡고, 등에는 노인을 업고 있었죠. 반군이 마을을 습격했던 날 입었던 똑같은 옷을 입은 채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분쟁 속에 가족을 잃었고, 또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이들 모두 음식, 물, 집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필요로 하죠.

난민촌은 분주한 곳이지만, 등록 센터에는 항상 침묵이 감돕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조용하죠. 그들이 겪은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으면 해요. 적어도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등록 진행 절차를 재빠르게 확인하고 물과 간식을 나눠주는 걸 돕습니다.

am 10:00

am 11:45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네요. 12시쯤에는 45도가 넘어갈 거예요. '정오의 불볕 더위에는 미친 개와 영국인만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이 떠오르네요. 유엔난민기구 직원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불평할 수는 없죠. 하루가 끝날 즈음, 저희는 에어컨 바람을 쐬고 샤워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곳에 도착한 이들은 우리가 제공한 생필품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후에 저는 모하메드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러 갔습니다. 최근 한 무리의 사람들과 이곳에 도착한 모하메드는 허리 아래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폭격으로 가족이 살해당하면서, 이웃들이 그의 탈출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신이 매우 혼미한 상태였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모하메드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깨어 있었지만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서비스 담당자들과 여러 방면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고 미래를 걱정했어요. 이웃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그를 다독였지만, 저 역시도 걱정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전 제가 만난 수많은 이들을 걱정해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강제로 이곳까지 떠밀려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보호팀 직원들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pm 4:15

운전 기사가 휴대용 라디오로 저를 호출합니다. 지금 떠나야 안전 통금 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때 저를 부르는 두 사람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 보호자라고 일컫는 제 친한 친구들, 예만(Eman)과 레일라(Leila)였습니다. 이들은 차량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고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난민촌을 떠나면서 저는 사무실에 전화해 난민촌 현황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저녁까지 마쳐야 할 보고서 내용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밤이 되겠지만, 차창 밖으로 예만과 레일라가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순간들이 모든 것을 가치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pm 4:30

2014년 유엔난민기구는

127개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462개 지역에서

7,750명의 직원이

약 5,495만 명의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직원 한 명이 보호대상자 7,090명을  
보호하고 지원했음을 의미합니다.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을 돕기 위해 720개의  
비정부단체가 현장 파트너로 일했으며,  
그 중 75%는 지역 비정부단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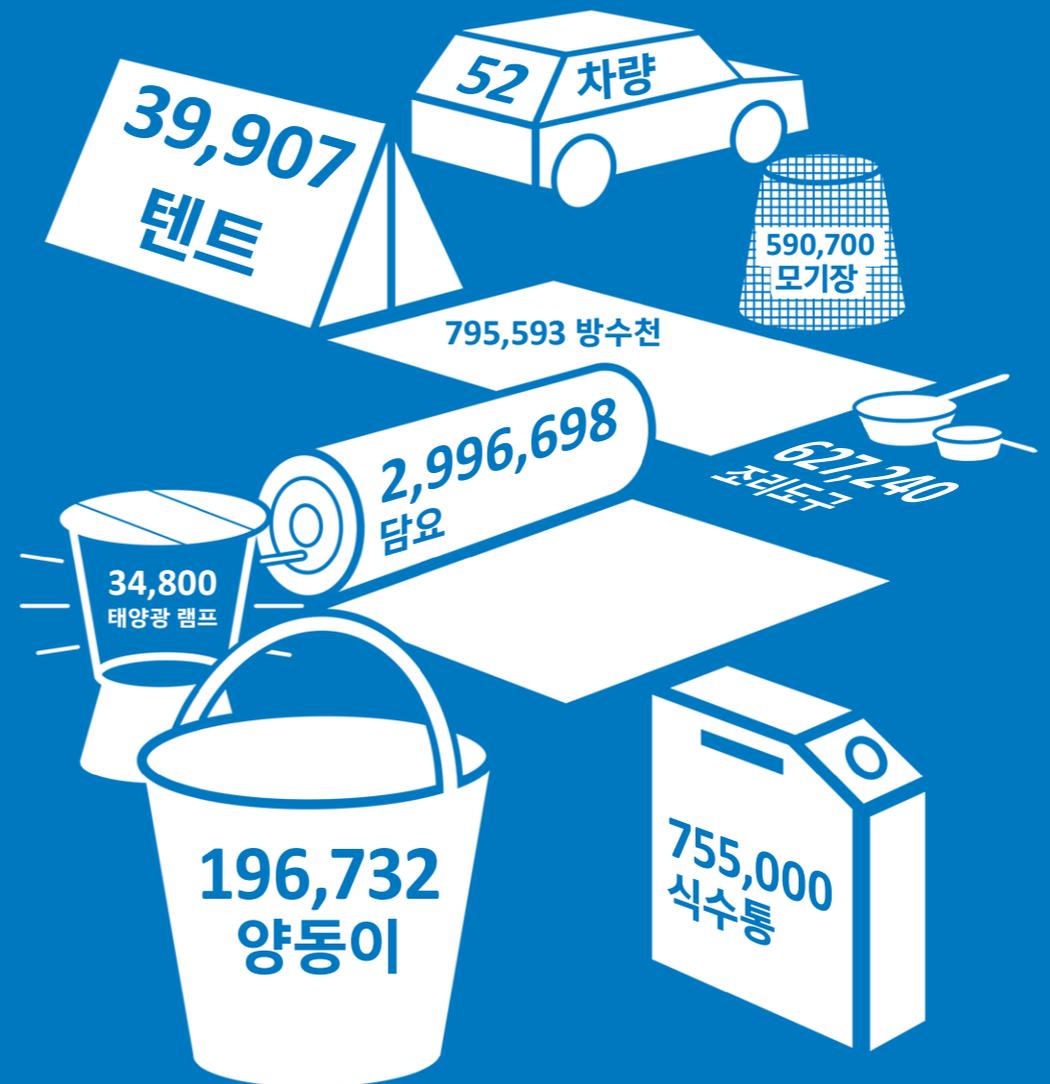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는

60만 명에게 주요 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요청 72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2014년에는 441건의 긴급 파견이 있었습니다.

## 2014년 긴급구호 현장 전달 물품



# 생존을 위한 필수 지원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의 강제이주민이 발생한 2014년,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을 떠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임시 거처나 담요와 같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후원자 여러분은 2014년에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톤드레스, 빅터와 함께 있는 헤르민의 모습 ©UNHCR/S.Rich

## 안전한 삶을 위한 출발 난민 등록

여러분의 후원은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가족들을 등록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과 같은 후원자들과 함께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보호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중 1,100만 명은 난민이었습니다. 법적 보호, 난민들의 권리 보장, 물품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조치들은 '난민 등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2014년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등록 절차를 다듬었고, 요르단에 새로운 홍채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개선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내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편부모와 같이 가장 취약한 이들이 유엔난민기구 전문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이야기. 하나 헤르민(Hermine)의 이야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양 진영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헤르민과 그녀의 남편 아르난(Arnan)은 스스로와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헤르민은 갓난아기 톤드레스(Tondres)와 빅터(Victor)를 데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했고, 이슬람 신자인 아르난은 차드를 향해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들은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헤르민과 아이들은 난민으로 등록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근처 난민촌으로 이동하기 전, 헤르민과 아이들은 건강 검진을 받았고, 어린 톤드레스는 영양 프로그램 지원을, 편모인 헤르민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이곳에서 받은 도움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남편을 찾기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빌어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알았으면 해요. 이 모든 것은 평화가 찾아올 때에나 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이죠. ”

## 몸을 누일 수 있는 임시 거처

여러분 덕분에 난민 가족들이 임시 거처를 제공받아 혹독한 날씨를 이겨내고 기본 생존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쟁을 피해 집을 떠난 한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2014년 강제이주민들에게 긴급 거처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세로 어려워 하는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했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공동 주거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텐트 3만 9,000개와 담요 250만 개, 침구 150만 개, 방수천 80만 개, 모기장 59만 개를 제공했습니다.

### 이야기. 둘 마니라(Manerah)의 이야기

70세 할머니 마니라는 한때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시리아 고향을 이제는 먼지 덮인 죽음의 도시로 묘사합니다. 2014년 1월 폭격으로 남편이 사망했지만, 그녀는 자식과 손주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폭격이 있던 그날, 그녀는 크게 다쳤지만 가족과 함께 무사히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현재 이라크 북부의 바시르마(Basirma)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는 마니라는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손녀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니라 가족은 현재 유엔난민기구가 제공한 대형 가족 텐트에서 살고 있고, 곧 조립식 이동 주택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입니다.

“ 분쟁은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었어요. 갖가지 방법으로 저를 고통스럽게 했죠. 이 나이에, 제가 난민이 되거나 고국에 이런 식으로 분해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가족 텐트 앞에서 딸,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는 마니라의 모습 ©UNHCR/S.Rich



가족이 머물고 있는 카라반으로 물통을 옮기고 있는 아주르(13세)의 모습 ©UNHCR/S.Rich



말라리아에 걸려 앓고 있는 묘헤(17세)의 모습 ©UNHCR/S.Rich

## 생존을 위한 물과 위생

여러분 덕분에 난민들이 깨끗한 물과 보다 나은 위생 시설을 사용해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유엔난민기구는 절반 이상의 지원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30리터 이상의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772개의 주거용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만들어 난민 수십만 명이 보다 나은 위생 시설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우물 6개, 수도꼭지 879개를 설치해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엔난민기구의 혁신적인 건강한 삶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각한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42만 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물은 희귀하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역 파트너와 함께 우물,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난민 공동체가 계속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이야기. 셋 아주르(Azoor)의 이야기

13살 아주르는 물이 가득 찬 유엔난민기구 물통 2개를 옮기면서 힘이 들어 얼굴을 살짝 찡그리지만, 그래도 곳곳이 이라크 북부 바시르마(Basirma) 난민촌에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아주르네 가족은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번갈아가면서  
엄마와 아빠를 도와 집안일을 분담하고 있어요.  
물론 힘든 일이지만, 다 같이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시리아에서는 몇 달전에 물이 끊겼는데,  
여기에선 물을 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여러분의 지원으로 난민들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은 난민 공동체에서 많은 병과 죽음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유엔난민기구의 대규모 백신 및 보건 프로그램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소아마비나 홍역과 같은 병으로부터 취약한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의료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살충 처리된 침대 모기장 59만 개를 공급했습니다.

### 이야기. 넷 묘헤(Myohe)의 이야기

17살 묘헤는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묘헤가 행여 추울까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묘헤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습니다. 묘헤가 말라리아에 걸린 것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이고, 현재 그 증상이 심각합니다. 말라리아 증세가 나타났을 때, 아버지 마틴(Martin)은 딸을 유엔난민기구 의료 센터에 데려갔습니다. 간호 조무사가 혈액 검사를 하고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다음 진료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모기장은 매우 중요해요. 너무 많은 모기가 있어  
아예 물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의료 센터를 방문해 약과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 묘헤의 어머니 줄리엣(Juliet)

## 생존과 건강을 위한 영양

여러분의 지원으로 모유 수유하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 보충 식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자원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도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지원을 삭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과 5세 이하의 어린이를 우선으로 영양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2014년 5만 6,338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면서, 공동체 관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 이야기. 다섯 로즈(Rose)의 이야기

나흘밖에 안 된 아기 조나단(Jonathan)이 엄마 로즈의 품 안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팔은 평화로이 이마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들이 쉬고 있는 몰(Mole) 난민촌 내 여성 지원 시설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지어졌습니다. 난민촌에서 출산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로즈는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고용된 산파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기운을 되찾고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산후 회복 식품을 제공받았습니다. 18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로즈가 아들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엄마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요. 몇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고향에선 분쟁의 강도가 심해져 많은 이들이 죽었고 저도 살아남기 위해 피난을 떠나게 되었어요. 집이 그림지만 내 아들이 난민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태어난 지 나흘밖에 안 된 아들 조나단을 바라보고 있는 로즈(18세)의 모습 ©UNHCR/S. Rich

## Thriving together

## 재건을 위한 필수 지원

유엔난민기구는 전쟁의 즉각적인 여파에 대응해 더 많은 난민들이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가 되살아나고 교육이나 훈련이 지속될 수 있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하난(11세)이 폐공장 문을 칠판으로 사용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 ©UNHCR/L. Addario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여러분의 후원으로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난민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는 배움의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기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은 이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혹은 미래의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7개 지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여러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838개의 교육 시설을 새로이 짓거나 개선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만 명의 난민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파트너 직원들을 통해 수십만 명의 초등교육을 지원했습니다.

### 이야기. 여섯 하난(Hanan)의 이야기

하난이 씩씩하게 칠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무 문을 닦아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분필 조각을 모으고 곧 그녀의 교실이 될 야외 공간을 정리합니다. 하난은 정규 교사는 아닙니다. 그녀는 레바논에 살고 있는 11살 시리아 난민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개설된 유엔난민기구 ‘2교대 수업 프로그램’ 덕분에 하난은 레바논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요가 사용 가능한 자원을 웃돌았고 모든 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난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동생들과 사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과 여가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동생들과 친척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움은 중요해요. 전 매우 엄격한 선생님이지요. 모두 저를 하난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요리를 자랑스럽게 선보이고 있는 말레인(40세)의 모습 ©UNHCR/A.McConnell



클라라가 고향으로 타고 돌아갈 유엔난민기구 운송 열차의 모습 ©UNHCR/B.Sokol

## 지속 가능한 해결책 자립과 생계

여러분의 지원으로 사람들이 직업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과 강제이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립 난민은 유엔난민기구의 제한된 자원에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존엄성을 회복하고 미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유엔난민기구는 생계 지원 분야의 모금액을 늘렸고, 이 덕분에 수천 명의 난민들이 재단, 전기, 인프라, 농업 기술 등의 생계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야기. 일곱 말레인(Marleine)의 이야기

40세 시리아 난민 말레인은 아시리안 미트볼을 익히는 큰 냄비를 들여다보면서 먹기 전 마지막으로 맛을 봅니다. 말레인은 유엔난민기구와 지역 파트너의 도움으로 레바논에서 머물고 있는 다른 시리아 여성 20명과 함께 색다른 요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말레인과 다른 학생들에게 좋은 질의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들이 전쟁의 소란과 참혹함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레인은 아이들, 남편과 함께 레바논에 도착했고, 20년간 저축한 돈이 몽땅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돈과 함께 자신들을 대학에 보내겠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미트볼을 접시 한가득 뜨면서 그녀가 말합니다.

“ 자기 제발을 위해 제가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온 나라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

## 난민보호의 궁극적 목적 영구적 해결책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난민들은 지역 공동체로 통합되거나, 타국으로 재정착 혹은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영구적인 집을 찾는 것은 난민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과 같은 후원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이 최상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고국의 상황이 안전해진 경우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부터 그들이 정착한 지역 공동체에 통합되거나 다른 나라로 재정착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난민들은 '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미얀마 난민 7만 3,000명이 미국으로 재정착했고, 이는 재정착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콩고민주공화국 거주 앙골라 난민 3만 명의 자발적 귀환\*을 마무리지었고, 콩고 귀환민 11만 9,024명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 이야기. 여덟 클라라(Clara)의 이야기

클라라는 고향인 앙골라의 루안다(Luanda)에서 도망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1978년 5월 27일, 충돌이 발생해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라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36년간의 난민 생활을 마치고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이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쁘긴 하지만, 죽은 엄마와 형제들의 무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 비통한 마음이에요. 이제 제 친구들이 있는 이곳 콩고민주공화국은 제2의 고향이자 제2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

\* 앙골라에서는 1961-1975년 독립 전쟁과 뒤따른 내전으로 55만 명이 난민이 되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거주 앙골라 난민 3만 명이 고국 귀환을 신청한 반면, 1만 8,000여 명은 여전히 콩고민주공화국에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의 가장 오래된 난민 사태 중 하나가 종결될 것입니다.

# 재정 보고

유엔난민기구의 예산은 2010년부터 시행된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를 바탕으로 기획되며 본부의 검토와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ExCom)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2014년 유엔난민기구의 필요예산은 미화 65억 6,970만 달러였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정부 간 기구, UN, 민간(개인, 기업, 재단 등) 부문에서 받은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미화 36억 379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예산의 55%에 그친 금액이었습니다.



## 필요예산 및 수입

### 필요예산

2014년 글로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확정된 필요예산은 2013년보다 23% 증가한 미화 65억 6,970만 달러였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된 예산 53억 780만 달러에 8개 지역(시리아 긴급구호, 수단 긴급구호/비식량 지원, 남수단 긴급구호, 이라크 긴급구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긴급구호, 파키스탄 국내실향민 긴급구호, 나이지리아 긴급구호, 우크라이나 국내실향민 긴급구호)을 위한 추가 예산 12억 6,190만 달러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 각 지역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별 보호대상자의 수와 사업 필요성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개입된 정부, UN 기구, NGO와의 협의를 거친 후 완성됩니다. 그 후 2개년 간 보호대상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예산을 구상하고, 본부의 사업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집행이사회(ExCom)의 승인을 받습니다.

### 수입

유엔난민기구의 수입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됩니다. 2014년에는 2013년보다 3억 6,900만 달러가 증가한 미화 33억 3,779만 달러의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에 2013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등이 더해져 2014년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한 전체 기금은 총 미화 36억 379만 달러였습니다. UN 본부로부터 한 해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UN 분담금 조성 예산은 3% 내외(2014년의 경우 1.26%)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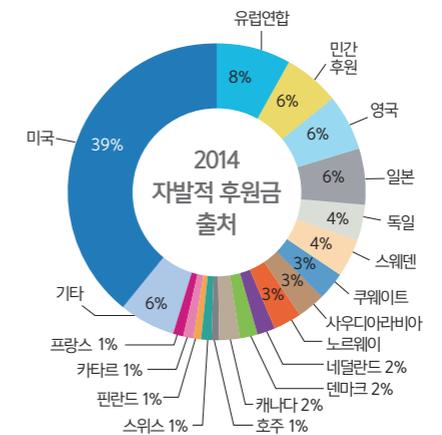
구분		비용(단위: 미화 달러)	
2014년 자발적 후원금	정부 및 정부 간 기구, 민간후원	3,218,007,435	3,337,791,218
	UN 기금*	74,231,983	
	UN 분담금으로 조성된 예산**	45,551,800	
2013년 이월금		262,300,000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수익		3,700,000	
2014년 사용가능 총 금액		3,603,791,218	

\* UN 기금(UN-managed pooled and trust funds) \*\* UN 분담금으로 조성된 예산(UN regular budget)

## 자발적 후원금

### 2014 자발적 후원금 출처

2014년 유엔난민기구가 모금한 미화 33억 3,779만 달러 중, 32억 1,801만 달러는 각국 정부 및 정부 간 기구,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기금의 53.4%는 미국, 유럽연합, 민간후원으로 부터, 82.2%는 민간후원을 포함한 상위 10개국 및 국가연합으로부터 조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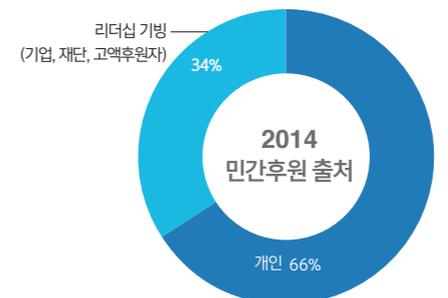
### 민간후원(Private Sector Fundraising)

2014년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기부자들을 포함한 민간 후원\*을 통해 총 2억 820만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 2014년 최초로 2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이는 2009년보다 310%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가별 민간 영역 후원 기반이 증가되고 확대되었으며, 특히,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호주, 독일, 미국, 대한민국, 스웨덴, 중국(홍콩 SAR)이 민간 영역 조성 기금의 상위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 전년보다 17% 증가한 96만 1,600명의 개인 기부자들이 미화 1억 3,700만 달러를 난민보호 사업에 후원했고, 이는 민간후원에서 가장 큰 부분(66%)을 차지했습니다. 기업, 재단, 고액후원자로부터의 모금을 포함하는 리더십 기빙(Leadership Giving) 프로그램에서는 총 미화 7,120만 달러가 조성되었습니다.

\* **민간후원(Private Sector Fundraising, PSFR)** 각국 정부 및 정부 간 기구가 아닌 개인, 기업, 재단, 고액후원자 등 민간 기부자 및 단체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지칭합니다.

### 연도별 민간후원 2006~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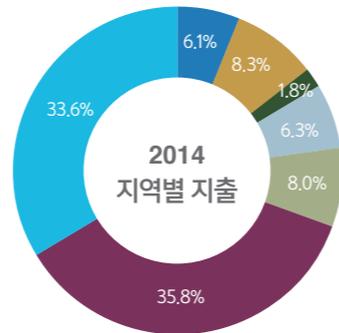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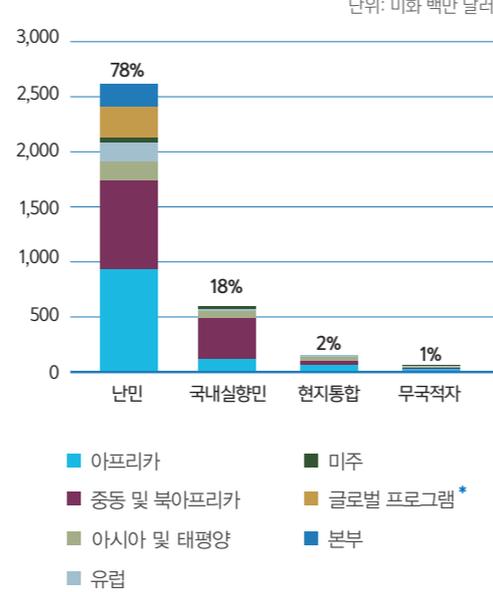
# 지출

2014년 유엔난민기구는 총 미화 33억 5,54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난민 프로그램에 26억 1,970만 달러를 사용하면서 총 사업비의 78%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같은 프로그램을 위한 작년 지출보다 10%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실향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2013년에 비해 36% 증가해서 6억 1,330만 달러(18%)를 기록했습니다. 현지통합 프로그램과 무국적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각각 7,910만 달러(2%)와 3,600만 달러(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출은 11억 9,880만 달러로 2013년과 마찬가지로 총 지출의 36%를 차지했고, 아프리카 대륙의 지출은 총 11억 2,520만 달러로 전체 지출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출은 10%에서 8%로 감소한 반면, 유럽과 미주 지역의 지출은 각각 6%, 2%를 차지하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금은 8%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본부의 지출은 2012년 8%, 2013년 6.5%, 2014년 6.1%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 글로벌 프로그램** 전 세계의 다양한 난민보호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 통신 시스템 관리, 난민 등록 및 지식 데이터 관리, 민간 모금 사업, 직원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 보급 관리, 재정착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2014 프로그램별 지출



## ▶ 글로벌 기업 이케아(IKEA) 재단의 후원 사례

2014년, 전 세계의 이케아(IKEA) 매장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첫 국제 캠페인인 '난민을 위한 새빛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케아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40개국 300개의 매장에서 판매된 LED 전구마다 1유로를 기부해 방글라데시, 차드, 에티오피아와 요르단의 난민촌에 전력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이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770만 유로(한화 약 117억 5,000만 원, 이케아 제공 자료)였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케아 매장에 새빛 캠페인 홍보 자료가 매장 내에 전시되었고, 트위터 해시태그(#BrighterLives4Refugees)를 포함해 언론과 SNS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중과의 교류는 난민촌의 어려운 생활과 전혀 없이 증가한 실향민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소 40개의 국가에 있는 수만 명의 이케아 고객들이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5,000명 이상의 새로운 난민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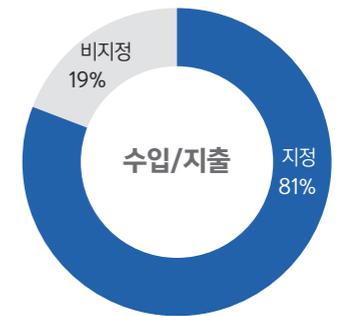
#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전 세계 난민보호 활동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2014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정부 및 민간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더욱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및 민간에서 모아진 후원금 총액은 미화 26,469,540달러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2014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에 총 미화 15,870,460달러를 후원했고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b>지정 기탁 81%</b>	시리아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b>비지정 기탁 19%</b>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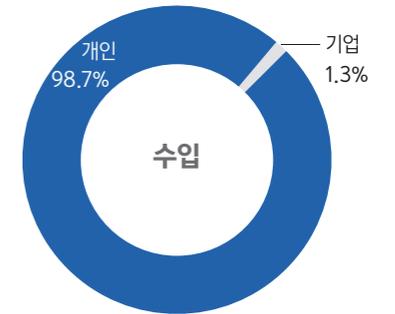


총 미화 15,870,460달러

## 민간 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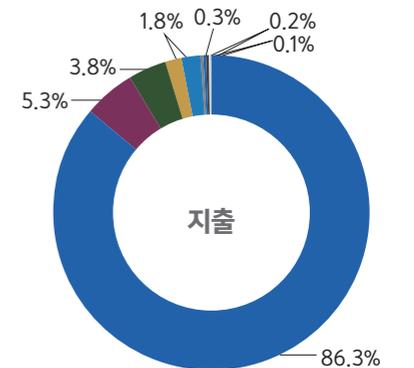
2014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 조성된 기금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b>개인 98.7%</b>
<b>기업 1.3%</b>



총 11,154,305,847원

가장 필요한 곳에	9,625,625,692 (86.3%)
시리아 긴급구호	594,078,227 (5.3%)
SBS희망TV - 케냐 난민촌	421,794,000 (3.8%)
전 세계 긴급구호	198,340,164 (1.8%)
SBS희망TV - 콩고민주공화국	196,740,000 (1.8%)
필리핀 긴급구호	28,804,431 (0.3%)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27,863,000 (0.2%)
현물 지원	26,387,408 (0.2%)
나인밀리언 캠페인 -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	17,392,000 (0.2%)
이라크 국내실향민 지원	10,000,000 (0.1%)
MBC W 기금 - 아프간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	7,280,925 (0.1%)



총 11,154,305,847원

# 한국대표부 활동 보고

## 2~3월 제일기획, 서울시립미술관이 함께 한 3D 난민전시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전시

유엔난민기구는 2014년 2월 7일부터 3월 2일까지 제일기획, 서울시립미술관과 함께 3D 난민전시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전시를 열었습니다. 2013년 12월, 제일기획 프로젝트팀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주선으로 서울시 근교에 거주하는 난민과 서아프리카 니제르 수도 니아메시 외곽에 거주하는 난민 등 총 30여 명을 직접 만나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3D 카메라로 촬영하고 3D 프린터로 인쇄된 난민 미니어처는 미술관 곳곳에 배치되었으며, 관람객은 스마트폰을 통해 각 난민들의 사연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시 기간 중 총 1만 명이 전시관을 방문하였으며, 80명 이상이 유엔난민기구의 정기 후원자로 서약하였습니다.



## 4월 대한민국 정부, 시리아 긴급구호 위해 100만 달러 전달

대한민국 정부는 시리아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2014년 4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를 통해 미화 100만 달러를 기탁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시리아의 폭력 사태로 발생한 국내의 난민과 실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리아 인접국 특히,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활동에 전달되었습니다.

## 5월 필리핀 긴급구호 종료

2013년 11월,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1,49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4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태풍 강타 직후 UN은 이 지역을 '긴급구호 3단계'로 지정하여 구호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72시간 내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등 긴급구호에 특화되어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피해 이재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신속히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국대표부 소속 법무관도 필리핀 현지 긴급구호팀에 급파되어 태풍 피해 주민들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속한 긴급구호 활동의 결과, 60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텐트, 방수천, 담요, 조리도구, 물통, 태양광 램프를 포함 여러 물품들을 지원받았습니다. 전 세계 개인을 비롯한 이케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후원으로 필요 기금이 모두 조성되면서, 필리핀 긴급구호는 지난 5월 복구에서 종료 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 5월 배우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명예사절 위촉

배우 정우성 씨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명예사절(Honorary Advocate)로 임명되어 전 세계 집을 잃은 수천만의 사람들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400여 명의 난민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우성 명예사절은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난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길 바라며, 명예사절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는 2014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한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광고영상(Public Service Announcement) 촬영으로 명예사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6월 2014년 세계 난민의 날 행사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함께 '2014년 세계 난민의 날 전시'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전시는 '우리 시대 가장 시급한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사진과 영상, 난민 텐트와 긴급구호 물품 등으로 구성되어 난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도모했습니다. 6월 9일부터 2주간 서울 시민청에서 진행된 이 전시는 제일기획, 서울특별시 등의 협조로 6만 명이 넘는 시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6월 17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명예사절인 배우 정우성 씨와 국내 난민 인정자 옴비 토나 씨, 초토 차크마 씨를 비롯하여 법무부 관계자, 난민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 세계 난민 보호에 뜻을 모았습니다.



## 7~8월 거리홍보모금, 프로젝트 캠페이너 런칭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시리아 등 전 세계 긴급구호 활동을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12명의 여류 캠페이너들과 함께했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 여류 캠페인을 통해, 캠페이너들은 전 세계 난민을 비롯한 국내 비호 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 각각의 '1분'이 모여 난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1분(1 Minute)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 9월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 총회 참여

1958년 처음 UN 총회의 요청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에 의해 설립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ExCom)는 25개국으로 시작하여 2014년 기준, 총 94 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유엔난민기구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및 예산을 승인하고, 국제적 보호에 대해 조언하며, 정부 간 파트너 및 비정부기구 등과 여러 안건을 논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부터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2013~2014년에는 의장국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65회 집행위원회 총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하여, 한국전쟁 당시 실항민의 삶을 살았던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 11월 정우성 명예사절, 네팔 난민촌 방문

2014년 11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명예사절이 된 배우 정우성 씨는 사진작가 조세현 씨와 함께 네팔 다락 난민촌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티베트, 파키스탄, 미얀마 등 고국을 떠나 네팔에서 타항살이를 하고 있는 여러 난민들을 만나 난민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난민보호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 11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개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Friends of UNHCR(프렌즈 오브 UNHCR), 국회인권포럼과 공동으로 2014년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난민법 시행 1주년'의 검토 및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과 함께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숫자는 다시 한 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개인, 기업, 재단, 정부의 후원과 참여 덕분에 전 세계 긴급구호에 대응하고 더 많은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호의 손길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2014년 주요 숫자

출처: Global Report 2014



**54,945,476명**  
보호대상자



**127개국 462지역**  
유엔난민기구 사무소



**7,750명**  
유엔난민기구 직원



**1 : 7,090**  
직원 : 보호대상자 비율



**94개**  
집행위원회 회원국



**148개국**  
1951 난민협약 및 1967 난민의정서 서명

콩고민주공화국에서 40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국 앙골라로 돌아가는 안토니오(Antonio) 가족의 모습

©UNHCR/Brian Sokol

# 유엔난민기구 사명 UNHCR Mission Statement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UN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상임이사회 및 UN 총회는 난민 외에도 본국으로 귀환한 귀환민, 국내실향민 그리고 국적이 없거나 논란이 되는 무국적자들 등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을 허가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적인 이주를 줄이고자 국가 및 국가기관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협력하며, 기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지역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며 난민을 포함한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후원금을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전문성 :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 기구

- UN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아 활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 기구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72시간 내에 최대 6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 책임성 : 책임 있는 난민보호 활동

- 유엔난민기구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자들 곁을 항상 지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책임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투명성 : 투명한 후원금 운영

-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 민간 부문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계획과 긴급구호 대응상황에 따라 전 세계 난민을 보호하는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유엔난민기구 본부의 승인 없이는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 기구입니다.

[www.unhcr.or.kr](http://www.unhcr.or.kr)

TEL: 02 773 7272 E-MAIL: [withyou@unhcr.or.kr](mailto:withyou@unhcr.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